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정부발행 부흥국채에 대한 일본은행의 반대

- 현재 일본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부흥채권에 대한 일본은행의 직매입 법률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행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.
 - 일본은행총재는 국회 재정금융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본 대지진 복구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부흥채권에 대해 일본은행이 직접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함.
 -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더라도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화발행 규모가 무제한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해 결국 국민생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.
-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일반적으로 채권시장에 유통되다가 중앙은행이 이를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매입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본이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한 경우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.
 - 이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만큼 중앙은행이 매입하여 사실상 중앙은행이 정부에 간접적으로 대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화발행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인수 등을 금지하고 있음.
 -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대지진의 발생으로 막대한 복구비용이 필요함에 따라 20조엔에 달하는 부흥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일본은행에 떠넘기려는 내용의 법안을 일본 여당 및 야당이 준비하고 있는 상태임.
- 일본 정부는 지진 복구비 조달을 위해 당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2011년도 예산을 수정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일본 여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국채발행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게 되었음.
 - 한편, 이에 앞서 지난주 일본 경제재정상은 일본은행이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힌 가운데 국채를 발행하여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과 개인 등을 대상으로 시장거래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바 있음.

(로이타 3/25, 요미우리 3/18 종합)